

천안축제의 변화와 위상

— 興打令・춤祝祭를 중심으로 —

한 남 수

HAN Namsu

1. 머리말

축제는 문화의 보고이며 소통의窓이다.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축제는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열어가고 지역의 정체성을 고취시킨다. 축제는 문화적 특수성을 극대화하면서 고유한 이미지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또 축제는 지역 간의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완화하고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일정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천안 축제⁽¹⁾는 지역 축제의 문제점과 변화를 고찰하는 의미 있는 선택이다.

1960년대 천안은 6만 여명의 소도시에서 50년 만에 인구 60만을 넘는 빠른 성장을 보였다.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구축되면서 ‘천안흥타령춤축제’는 ‘문화천안’, ‘흥이 있는 천안’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천안흥타령춤축제는 1974년 삼거리단오제에서 출발해 1987년 ‘천안삼거리문화제’로 이어졌다. 그러나 삼거리문화제는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충분한 소통을 이끌지 못했다. 천안시는 일본과 아시아의 우수한 축제를 견학했고, 축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에 고군분투했다. 2003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지역 요사코이 소란 마츠리를 관람하면서 ‘거리퍼레이드’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거리퍼레이드는 천안의 지역적 특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참여자를 ‘춤’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축제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전통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지역 축제의 고정관념을 탈피해 ‘흥타령’⁽²⁾의 ‘흥’을 강조하면서 ‘춤’으로써 천안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2003년 축제는 42개의 참가팀에 55,600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2008년 해외 5팀을 초대하면서 115만 명이 방문하는 쾌거를 올리면서 ‘백만인축제’로 성장했다. 천안축제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다. 2011년 ‘천안흥타령춤축제’로 개명하면서 천안축제는 세계의 우수한 민속춤 연희단체를 초대해 해외 21팀 참가와 방문객 128만 명이 다녀갔다. 2012년 2013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면서 국내 유일의 춤축제로서 독보적인 자리를 선점한다. 2013년에는 세계 20개국 600명의 춤꾼과 국내 6,400여명의 춤꾼들이 참여하면서 축제의 위상을 높였다. 2003년 축제 개명에서 2013년 국제적인 춤축제로 지역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축제의 성공을 다졌다. 2012년 천안축제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춤축제연맹(FIDAF)을 조직하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 16개국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였다. 축제의 안정적인 기반과 상호 협력을 위해 지역 축제의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고, 천안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축제는 흥과 춤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흥·춤’ = 천안이라는 지역적 표상의 정체성을 창출했다.

천안축제 연구는 2004 년부터 주요 논의대상이 되어, 지역축제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 관광구조 산업, 청소년 참여 확대, 무용 공연의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³⁾

그러나 천안축제의 전반적인 발전과 변화 및 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논의되지 않았다. 천안 축제는 주제, 규모, 세계의 민속춤 공연, 지역민 참여 등에서 변화와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주어 축제 발전의 변화를 고찰하는 좋은 예를 제시한다. 요식행사와 관광객의 볼거리로만 전락하는 지역축제의 현실에서 천안축제는 시민과 학생, 일반인, 무용 전공자들을 연희자로 수용해 대중성과 창의성 그리고 예술성을 추구했다. 이것은 ‘춤’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부각시키면서 지역의 축제가 아닌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했고, 세계인이 참여하는 축제로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내부적으로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면·읍·동 소외 지역의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토산품을 통한 이미지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또 ‘다문화가족 한마당’을 만들어 외국 근로자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지역민과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 했다.

지역 경제의 발전과 무분별한 상업성만을 강조하는 축제의 홍수 속에서 천안축제는 지역민과 지역,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지역과 세계를 잇는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26 년 장수 축제로서 천안축제의 변화와 위상 그 의미를 고찰하는 일은 지역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탐색하는 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2. 천안축제의 명칭과 변화

1) 천안(天安) 삼거리 역사와 풍경

‘삼거리’는 역사적으로 천안의 지리적 위치를 대변해 왔다. 교통의 요지로서 삼남(三南: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을 관통하는 삼거리는 경제, 정치, 문화를 잇는 소통의 공간으로 천안문화 발전의 산실이다. 우선 지리적 요충지로서 천안의 역사적인 연원에 대해서 시대적인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천안이 지리적 요충지로 주목 받은 것은 고려 태조 때부터이다. 술사 예방(倪方)이 천안의 태조산(太祖山)을 명산이라 지명한 이야기가『고려사』에 전한다. “이곳은 삼국의 중심부에 해당하며 오룡쟁주(五龍爭)의 형국으로 삼천민호를 정주케 하고, 이 땅에서 군사 훈련을 한다면 백제는 싸우지 않고 스스로 항복해 올 것입니다.”⁽⁴⁾ 다섯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얻으려고 서로 다툰 만큼의 진산임을 확인한 후 태조는 대목악(大木岳: 지금의 목천), 사산(蛇山: 지금의 직산), 탕정(湯井: 지금의 아산) 등의 지역을 통합해 천안도독부(天安都督府)를 설치한다. 후삼국 통일의 전진기로서 군사적 요충지로 삼은 것이다.『朝鮮名都邑誌』에도 고려 태조에서 조선 성종(成宗)에 이르기까지 천안의 명칭을 소개하고 있다. 동서 도솔(兜率) 지역을 태조 때에 천안부로 설치하고, 성종(成宗)이 환주(歡州)로 개명해 단련사(團練寺)를 두었다. 현종(顯宗)이 다시 천안부로 고치고, 지부사(知府事)와 고종(高宗)과 몽고의 침입으로 선장도(仙藏道)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충선왕(忠宣王)이 영주(寧州)로 개명하고 공민왕(恭愍王)이 천안부로 환원했다. 조선 태종(太宗)에 영산부(寧山府)로 고쳤다가 천안으로 개명했다.⁽⁵⁾ 1914 년 전국 360 고을을 축소 조정하여 210 군으로 편제하였는데 그 때 목천, 직산, 천안을 합쳐 천안군으로 개편하였다.⁽⁶⁾ 세 군이 통합된 천안군의 영성면(寧城面)은 1920 년 천안면(天安面)으로 개칭하였으며 1930 년 천안읍

(天安邑)으로 승격하여 1963년 천안시 승격의 모체를 이루었다.⁽⁷⁾ 이로서 인구 6만을 구성하며 천안시가 되었다.

천안시에 포섭이 안 된 12개 면(面)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천원군’이라 명했다. 이후 천안은 1995년 5월에 市郡을 통합했다. 1905년 1월 경부선 천안역이 개통되었다. 1931년 경기도 장호원에서 장항을 잇는 경남철도가 개통되었고, 1995년 장항선으로 불리게 되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2004년 고속전철(KTX) 그리고 2005년 수도권 전철의 개통으로 인구 60만의 산업경제의 거점 도시로 성장했다. 이처럼 천안은 역사적인 공간을 넘어 시대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성장했고, ‘삼거리’는 천안의 문화적 표상으로 도시공간의 문화적 토대를 이루는 축제의 모태가 되었다. 삼거리가 있던 장소는 1970년대 공원 사업이 확장되면서 삼거리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면적 9만 6000m²의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천안축제의 본무대가 되었다.

2) 1987년 삼거리흥타령문화제

삼거리는 천안의 문화 표상이다. ‘흥타령’ 민요처럼 흥과 노래 춤이 어우러져 천안의 정서와 애환을 담고 있다. 1987년 천안시는 삼거리흥타령문화제를 개최하면서 ‘문화천안’의 정통성을 살리는데 기여했다. 삼거리 문화제는 천안의 역사성과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했고, 시민의 즐거움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켰다.

천안삼거리는 천안시 삼룡동에 위치한 삼남대로(三南大路)의 분기점이다. 삼거리는 “서울에서



Figure 1 <1974년 삼거리 입구 분기점>



Figure 2 <2000년대 삼거리 입구 분기점>



Figure 3 <1980년대 삼거리 공원>



Figure 4 <2000년대 현대의 삼거리 공원>

내려오는 대로가 천안삼거리에 이르면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한 길은 병천을 거쳐 청주로 들어가 문경(聞慶) 새재를 넘어 상주, 대구, 경주, 동래에 이르는 대로요, 한 길은 공주를 거쳐 논산 강경, 전주, 순천에 이르는 대로이다⁽⁸⁾”. 1911년도 국도 1호선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1928년 천안삼거리 옛길을 폐쇄하고, 공원 조성에 새로운 신작로를 개설 현 천안 삼거리로 이전했다. 시민의 숙원 사업인 삼거리 개발을 천안시가 수용하면서 제 6대 시장(김용구)에 의해서 개발이 추진된다. 1974년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첫 문화제인 단오(端午)제를 거행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다. 능수버들만이 무성한 삼거리입구 분기점은 1974년 개발을 진행하면서 인근 주변의 전답과 환경을 정비해 공원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였다. <사진자료 1>은 삼거리 개발 당시 도로 정비가 안된 능수버들만이 우거진 Y형 거리의 모습이다.

1974년 1천 2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3천 2백여 평의 연못을 준설했고, 1천여 평의 잔디밭 광장을 조성했으며 능수정도 신축했다. 또 삼거리 탑을 건립하고 능수버들 등 관상수 2천 1백 그루를 심어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가 정비되었다. 천안시 번영회, 천안향토문화연구회가 운영되면서 천안삼거리단오제를 주관할 수 있었다. 번영회장 한기수(韓其洙)는 “행정당국의 개발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들이 천안삼거리 개발에 앞장서자”⁽¹¹⁾고 주장하면서 번영회가 중심이 되어 75년 5월 14일 제 2회 삼거리단오제를 열었다. 천안 삼거리 개발 사업은 “관광객이 지나가던 도시에서 멈추어가는 도시”⁽¹²⁾를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 민간자본을 유치해 천안삼거리 고유의 주막촌 건립계획도 추진했다.⁽¹³⁾ 천안번영회는 다시 ‘천안삼거리문화제’를 제안하면서 1984년 ‘천안삼거리예술제’가 탄생하였고, 이후 1987년 ‘천안삼거리홍타령문화제’로 발전할 수 있었다. 당시 단오와 추석이 지방 문화제로 유행했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의 場으로 활용되면서 지역축제의 초석이 되었다. 천안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제를 통해 문화공간의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삼거리홍타령문화제’를 준비했다. 다음은 천안시 삼거리문화제를 참여했던 조은덕 팀장의 이야기이다.

천안이 소도시로서의 지역문화의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고 지역예술문화를 향유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삼거리문화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문화예술협회가 총동원되었죠. 가령, 미술, 사진, 문인 협회 등이 있는데 이들 회원은 대부분 시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삼거리가 단일 축제가 아닌 예술문화단체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는 문화 발표의 장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¹⁴⁾다.

번영회의 삼거리단오제에서 출발한 ‘삼거리홍타령문화제’는 지역민의 문화적 소양을 고양시키고 발휘하는 소통의 장소였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문화제로 이어졌다. 1987년 11월 5일(木)에서 8일까지 첫 문화제를 열었다. 우선 천안을 상징하는 능수버들, 특산물, 역사적 인물 등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천안삼거리의 전설적인 이야기로 민간에 전해지는 ‘능소(綾紹)와 박현수(朴賢秀)’의 사랑이야기를 소재로 능소아가씨 선발대회도 열었다. 전설 능소의 이야기는 마당극 능소전으로 발전했고, 홍타령춤축제에서는 중요 뮤지컬로 변화된다. 능소의 여러 이야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러 가던 유봉서(柳奉書)가 천안삼거리에 이르러 무남독려인 일곱



Figure 5 〈1987년 삼거리문화제〉



Figure 6 〈1987년 농소미인선발대회〉



Figure 7 〈1992년 삼거리 문화제〉

살 난 딸 능수를 천안삼거리 주점에 떼어 놓으면서 짚고 오던 버드나무 지팡이를 주막 옆에 꽂았다. “이 나무가 싹이 터 무럭무럭 자라듯 능수 너도 잘 자라야 한다.” 는 한마디를 남겨놓고 전지로 떠났는데 그 지팡이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었다. 능수는 이 버드나무를 아버지처럼 느끼며 주막을 떠나지 않고 살면서 손님을 접대하던 중 전라도 고부에서 과거 보러 오던 박현수(朴賢秀)와 사랑에 빠졌다. 어렵사리 마련한 명지전(明紙錢; 응시원서)을 털리고 몸마져 상한데 사람을 알아보는 능소라는 기생이 극진히 돌봐주고, 용돈까지 거두어줘서 무사히 과거에 응시했다. 후에 장원급제를 했고 삼남어사(三南御使)가 귀향하는 길에 능소를 먼저 찾아서 그때까지 정절을 지키며 기다려준 능소와의 만남을 가졌다. 둘이 앉아 채희의 기쁨으로 부른 노래가 ‘흥타령(興打令)’이다. 능수가 세상을 떠난 후 이 고장 사람들이 단오절이면 능수의 넋을 기려 연못의 창포를 뜯어 머리를 감고, 능수버들에 그네를 매고 하루를 보낸 것이 단오절이 되었다.⁽¹⁵⁾



Figure 8 〈현대의 마당극 ‘능소전’ 삼거리 공원 공연〉



Figure 9 〈뮤지컬 ‘능소전’ 삼거리 공원〉

삼거리는 삼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분기점이라 주막거리도 많았다. 조선시대 국립 민박소라 할 수 있는 원관(院館)도 있어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곳 삼거리를 지나는 삼남의 나그네를 중심으로 만남과 이별에 대한 사연이 풍부해지면서 젊은 남녀에 대한 사랑이야기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능소전과 달리 부제인 ‘삼거리노제’는 전통 민속신앙을 재현하고 천안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거리극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길손의 안녕을 기원하고 노신을 위로해 지역 수호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자 했다. 경축음악회를 열어 대중음악과 관현악 등을 선보였다. 소외지역인 천안 외각 근교의 읍·면·동 대향 민속놀이를 개최해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다. 여기에 수반된 종목은 널뛰기, 제기



Figure 10 <1992 년 삼거리 노제>



Figure 11 <삼거리 문화제 노제 1987 년>

차기, 그네뛰기, 닭싸움, 단체줄넘기, 호두 까기 등으로 주민과 시민들을 위한 화합의 잔치를 마련했다.

전통문화의 보호와 전승에서 미혼 남녀 2 쌍을 초대해 혼례 과정을 시연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예인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천안미술협회전, 꽃꽂이 가훈전, 전국사진공모전, 중견서예인전, 시화전, 수석전지 등이다. 또 연극공연, 학생글짓기 사생대회, 시민백일장, 전국 漢詩백일장, 전국민요경창대회, 삼거리음악제, 시민가요제 및 무대예술제, 학생 국악경연대회, 도서전시회 등도 열었다.

연례행사로 진행되는 삼거리문화제는 본 행사인 능소아가씨 선발대회, 박도령 선발대회에 상금이 수여되면서 예산 낭비에 대한 비난이 일기도 했다. 시조경창과 국악공연도 이어졌는데 거문고 독주와 궁중무용, 부부가요 경연대회가 공연되었고, 행사 기간 내에 미술전시회가 열렸다. 다음 표는 1989 년 제 3 회 삼거리 흥타령 문화제 프로그램이다.

표 1 <제 3 회 삼거리 흥타령 문화제>

1989.10 월 26 일 (목)				
행사구분	행사종목	시간	장소	내용
전야제	삼거리 노제	16 : 00	삼거리공원	거리굿, 농악
	연극공연	19 : 00	시민회관	동작그만 (부활극단)
10 월 27 일 (금) 장소 : 삼거리 공원				
개막식	개막식	10 : 00		
	식후 행사	10 : 15	강강수월래, 고전무용, 농악	
본행사 (사회이종태 KBS)	능소아가씨 선발	10 : 30	인정패, 부상	
	박도령 선발	11 : 00	인정패, 상금	
	한시 백일장	13 : 00	사장, 상금	
	시조경창	13 : 00	상장, 상금	
	민속놀이	13 : 00	그네뛰기, 널뛰기, 윷놀이	
문화행사	국악공연	19 : 00	거문고독주, 궁중무용	
10 월 28 일 (토) ~ 10 월 31 (화) 장소 : 시민회관				
문화행사	무용공연	28 (토)/14 : 00	화관무, 시집가는 날	

	오페라 공연	28 (토)/19 : 30	아말과 방문객 (메노티 작곡)
	전국민요경창대회	29 (일)/11 : 00	장원, 차상, 차하, 상장, 상금
	음악회	29 (일)/19 : 00	합창, 독창, 피아노 독주
	음악발표회	30 (월)/19 : 00	피아노연주, 성악, 합창
	주부가요경연대회	31 (화)/19 : 00	인기연예인 다수 출연
	호서대 교수 연주회	31 (화)/19 : 00	피아노연주, 성악, 오페라 중창
	미술전시	10.27~31	작품전시

삼거리흥타령문화제는 연속 3 회를 개최했고, 4 회부터 ‘삼거리문화제’ 로 개명한다. 이것으로 삼거리, 흥타령, 능수버들의 지역적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20 만 시민의 축제의 발판이 된다. 2000 년도가 되면서 천안의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주제 의식을 담았다.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다는 의미에서 2002 년은 ‘희망과 미래의 천안’ 으로 슬로건을 내걸었다. 1987 년에서 2002 년도까지 삼거리문화제는 천안의 성장과 함께 했다. 그러나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해 새로운 전환을 기약해야 했다.

3) 2003 년 천안흥타령축제

1987 년 시작된 삼거리문화제는 16 회로 막을 내렸다. 삼거리 문화제 폐막 후 예산낭비와 주제의식의 결여, 시민 참여의 부족은 여전히 중대 과제로 남았다. 문화제에 대한 혁신과 변화에 대한 고민은 2003 년도 16 회의 뒤를 잇는 경쟁력 있는 축제 도입으로 통일되었다. 천안시는 2003 년 2 월 14 일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단체 각계의 의견과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다음은 2003 년부터 천안시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으로 10 년간 축제 현장을 담당했던 안동순 팀장의 이야기이다.

일본 축제 ‘요사코이’ 를 견학하면서 3 박 4 일 내내 축제만 보았습니다. 이 축제를 어떻게 천안 축제에 도입할지 고민이 많았죠. 돌아와서도 내내 그 고민은 끝나지 않았고, 여러 날 잠을 설치면서 축제에 매달렸습니다. 축제 관련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전 축제와의 변별력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춤’ 이라는 주제를 부각시켜야 했고, 심사 평가는 물론 축제 진행방식의 문제점을 바꾸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¹⁶⁾

시민단체가 함께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삼거리흥타령페스티벌’⁽¹⁷⁾ 이라는 천안 지역만의 차별성과 이미지를 강조했다. 축제는 하나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주제 아래 세부적인 항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거나 절충을 했을 때 반복되는 문제와 주제의식을 표현하지 못하는 폐해를 줄이는 것이 큰 과제였다. 그래서 과감하게 관행적인 프로그램도 없앨 수 있었다.

천안시는 성무용 시장을 필두로 기획단을 꾸려 총 12 명의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을 견학했다. 시 관계 공무원, 경찰, 신문기자, 시의원과 위원장인 성무용 시장 등이 참여했다. 축제 기획단은 마즈리의 본고장인 일본 삿포로 지역축제를 벤치 마케팅으로 삼아 “2003 천안삼거리춤축제” 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로 삼았다. 기획단은 5 월에 운영, 행사지원, 홍보마케팅 등 3 개 분과에 총 20 명의 구성인력을 갖추었다. 춤축제기획단은 일본 소란축제 ‘요사코이’ 를 참관하면서 2003 년 축제의 방향을 마련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로서의 축제 정신을 선보이면서, 1997 년 시도했던 거리퍼레이드를 다시 재조명 하는 기회로 삼았다. 다음은 2003 년부터 2006 년까지 천안시 문화예술팀장을 담당했던 김수열 과장의 이야기이다.

지역정서를 최대한 살리는 축제가 필요했어요. 시민의 응집력을 높이고 단발성이 아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 축제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순수예술성과 대중성을 띤 그런 시민의 축제로서 천안의 정체성을 알려야 했습니다.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모형의 축제를 변화시키는 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했으니까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팀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했고, 원만한 타협을 찾으면서 변화를 이끌어야 했어요. 요사코이 마츠리를 보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소란 마츠리는 매우 엄숙하고 일정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오도리 공원을 따라 수많은 인파 속에 만장을 들고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한 건 그런 경건함 보다는 변화와 생동감을 갖는 자유로운 축제였죠. 춤이라면 그 모든 것을 융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춤’ 은 약간의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였지만 이미지 변신에 가장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춤과 흥을 접목해서 천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 당시 춤은 모든 축제에 다 있었고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안만의 춤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혁신적인 게 필요했죠. 요사코이를 보면서 군무(群舞)로서 일정한 참여인원을 확보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돌아와서 모형을 만드는 작업에 몰두했고 새벽 2 시가 되어야 퇴근할 수 있었⁽¹⁸⁾죠.

요사코이 축제는 1954 년에 시작된 새로운 축제이지만 규모의 크기나 참가하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¹⁹⁾으로 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만든 축제로 유명하다. 천안축제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들의 참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 김수열은 김춘식(천안대 교수) 이 제안한 ‘경연 위주의 춤축제 흥타령’ 을 보다 구체적인 거리문화제로 이끌면서 삼거리문화제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2 억 4000 만원의 시비가 지원되는 축제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식의 전환을 이끌었다.

천안흥타령축제의 주제는 ‘다함께 흥겨운 춤을 (Let's Dance in Cheonan) !’ 이다. 천안의 고유성과 특징을 부각하는 의미를 담아 ‘춤추는 천안’, ‘신명나는 대한민국’ 으로 슬로건을 내걸었다. 2003 년 10 월 첫째 주인 10 월 2 일에서 4 일까지 42 팀에 1122 명이 참가했고, 방문객 55,600 을 맞이했다. 2003 년의 축제의 탄력을 이어 2004 년 제 2 회 흥타령 춤축제는 9 월 30 일에서 10 월 3 일로 축제일을 연장하면서 경연참가 53 팀 1286 명에 110,000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다. 천안 삼거리의 고유 정서인 ‘흥’ 이 춤으로 이어지면서 전국 유일의 춤축제로 천안의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천안흥타령축제는 2011 년도 ‘천안흥타령춤축제’ 로 개명하면서 문화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3 년 연속 선정되었다. 지속적인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외 블로그단을 초청하고 10 월 전국축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2012 년부터 서울 명동에서 열린 예비무대는 대외적인 홍보는 물론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축제의 위상을 다졌다. 세계적인 민속춤팀의 참가자들이 함께 1 시간 30 분 거리 공연을 펼쳤다. 명동 공연은 천안흥타령춤축제의 개막을 알리고, 주요 언론사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어냈다.

3. 천안축제의 위상과 전망

1) 만남의場

공간은 축제가 열리는 무대이다. 관객과 참가자 모두가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의 장이다. 일상을 벗어난 공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타자와의 협력과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앙리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에서 “공간적 실천은 공간을 지배하면서 또 전유하면서 느끼지만 확실하게 공간을 생산한다⁽²⁰⁾”고 했다. 공간적 실천은 지각되는 공간 안에서 일상적인 현실과 도시 현실을 밀접하게 연결 짓는다.⁽²¹⁾ 축제가 진행되는 무대와 거리는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에너지가 응결되는 곳이다. 삼거리 공원과 아라리오 광장은 천안 축제를 전유하고 일상과 도시의 현실을 잇는 교량(橋梁)의 실천적 공간이라 하겠다. 이 두 공간은 삼거리 공원의 춤경연과 시내 중심가를 거쳐 아라리오 광장에 이르는 거리퍼레이드(길놀이)로 이루어진다. 참여자가 천안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주제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만남의 장소를 향하는 것이다.



Figure 12 〈2012 년 은상 푸른잎사귀〉



Figure 13 〈2013 년 대상 상명대학교 연극반〉

우선 춤경연은 예비 경선을 통과한 팀들이 본선과 결선을 통해 최우수 팀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거리 공원 내에서 주무대와 부무대를 나누어 각 팀을 무대에 올리고 우열의 경쟁을 가린다. 해외민속춤 경연대회와 국내팀으로 나누고, 국내팀은 다시 학생부, 일반부, 실버부, 흥타령부, 창작부로 나누어 경선을 연다. 경연방식으로 우수팀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관건이다. 심사위원은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팀을 선발할 것을 요구 받는다. 심사위원은 여러 팀을 중복해서 심사할 수 없고, 참가자들의 익명을 철저히 보호해 심사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또 천안 지역 참가자들이 유리한 점수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위원 명단과 팀 명단 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 본선과 결승 경연이 끝나고, 무대 현장에서 바로 대상팀을 발표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현장 무대에서는 여전히 미완의 문제들이 남아있다. 많은 춤공연팀의 참가는 축제의 열기와 즐거움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무대 주변의 산만함과 대기실 부족, 대기 시간의 지연, 진행상의 문제점 등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불편함이 되고 있다.

관객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공연팀을 찾아 객석을 찾아가서 즐기면 된다. 공원은 춤 공연 외에도 여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산물 체험 탐방으로 거봉포도 와이너리, 외국인 한국 전통 혼례, 다문화가족 한마당, 농촌 체험관광, 야생화 전시, 청



Figure 14 <2012 년 풍물난장 체험학습>



Figure 15 <2012 년 거봉포도 와인너리 체험현장>

소년 어울마당, 대학 동아리 한마당, 웰빙요리경연, 읍·면·동 민속놀이, 전통 차시음, 가훈 써주기, 능소전 등 여러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공연장에 마련된 체험 학습장은 교육적인 효과가 높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공연 문화 행사가 큰 관심을 받았다.

삼거리 공원은 축제가 시작되는 전날부터 폐막하는 날까지 관람객 모두가 즐기는 체험장이 된다. 축제의 얼굴이라 하는 거리퍼레이드는 낮과 밤 두 번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3 년부터는 저녁 7 시에서 밤 11 시까지 한 번으로 진행했다. 제일고에서 출발해 천안역 광장을 거쳐 삼도상가, 복자여고를 지나 고속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 아라리오 광장까지 총 2.2 km² 거리로 이루어진다. 거리퍼레이드는 해외민속춤 단체들과 춤경연에 참가하는 팀 일부와 거리퍼레이드만 단일 항목으로 참여하는 팀으로 구성된다.



Figure 16 <2012 년 은상 거리퍼레이드>



Figure 17 <2013 년 아라리오 광장 거리퍼레이드>

2012 년도 44 단체 2155 명이 참가했다. 2013 년도는 총 50 단체 2728 명이 참석해 축제의 서막을 장식했다. 예로 해외 23 개팀, 대학생 8 팀, 춤단체 7 팀 기타 지역단체 12 팀이 참가했다. 거리퍼레이드는 춤과 의상을 테마로 특색 있게 구성해 세계적인 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음은 거리퍼레이드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안동순 팀장의 이야기이다.

거리퍼레이드는 축제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시민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고, 시민에게 찾아가는 화합의 축제로서 참여자와 관객이 다 함께 만족하고 즐기는 분위기를 조

성합니다. 동남구청이 있는 불당동에서 철도건너 천안여상을 포함해 다시 천안역 광장과 시내 중심을 거리퍼레이드 구간으로 넣었습니다. 총 3.9 km²로 참여자 모두를 지치게 하는 여정이었죠. 낮과 밤 두 번을 나누어서 해야 하고, 전통의상을 입고 춤을 추면서 거리를 행진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현재는 여론을 수렴해 제일고에서 출발해 천안역, 아라리오 광장으로 확정했습니다. 아라리오 광장에 계단식 객석이 마련되면서 매년 가장 화려한 축제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춤 따라하기, 춤 배우기 등의 체험을 늘려서 참가자와 관람객,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어울림 마당이 되었죠. 우선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세계의 민속춤을 배우는 자리가 되어 가장 화려한 축제의 전야제가 되었습니다.⁽²³⁾

천안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거리퍼레이드는 천안을 가장 흥미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천안축제의 얼굴이다. 거리퍼레이드는 크게 네 가지 이미지를 담고 있다. 첫째, 즐기는 축제이다. 열정과 신명나는 춤과 음악으로 구성해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목표로 한다. 둘째, 축제의 세계화이다. 외국 민속춤 참여자들이 직접 춤을 가르치고 함께 따라 하는 기회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축제를 넘어 세계의 축제로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해마다 여러 국가의 다양한 민속춤 단체와 교류하고 있다. 셋째, 신명나는 축제다. 천안 축제는 ‘흥(興)’이 있는 축제다. 대상과 연령 성별을 망라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를 이끌고자 한다. 참여 계층도 학생과 대학생 등이 참여하면서 젊은 축제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천안 인근에 1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들이 해마다 축제의 주요 참여자이며 관객이다. 넷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축제이다. 총 2.2 km²미터 시내 중심 거리를 거리퍼레이드로 확보하기 때문에 7시부터 자정까지 중심 도로가 차단된다. 시내 중심 거리는 퍼레이드가 끝나면 수십 대의 청소차량이 거리의 쓰레기를 치우고 주변 정리에 나선다. 거리퍼레이드는 매년 문제가 되는 점을 다음 해에 개선해 축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다. 거리퍼레이드는 시민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으로 창의성과 개성을 발휘하는 축제의 꽃으로 불린다.



Figure 18 <2013년 체코팀 거리 퍼레이드>



Figure 19 <2011년 거리퍼레이드 대상 단국대학교>

아라리오 광장을 포함해 12개 장소마다 ‘춤 한마당’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곳곳에서 각자의 기호에 따라 춤을 배우고 즐길 수 있다. 12개 장소는 “천안 제일고-버들6거리-동남구청입구-천안역-대흥동우체국-삼도상가-해강병원-북자여고-명품애견-태영음향영-랜드마크타워-신세계 백화점 앞”이다. ‘춤따라 배우기’는 각 참가팀을 응원하고,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배우며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다음은 2013년 거리퍼레이드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한 성거위례(聖居慰禮)팀의 이야기이

다.

성거는 천안의 중심도 아닌 그냥 변두리라는 생각이 강했죠. 그래서 약간의 소외감도 있었어요. 축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도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요. 아이들과 한두 번 구경을 간 적은 있지만 실제 참가자로서 축제는 이 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라리오 광장에 딱 서는 순간 우리팀이 가장 뛰어났고 의상이나 행렬의 규모에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거리퍼레이드는 달리 특별한 연습을 할 수 없었어요. 평소에는 다들 생업에 바빠서 자주 모일 수도 없으니까요. 우리팀도 3일 정도 연습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전 귀족으로 참여했죠. 백제의 시조 온조가 도읍한 위례성이라는 역사적 이미지를 담아 307 명이 거리퍼레이드에 나갔습니다. 말도 타고 귀족옷으로 갈아입고, 바구니에 거봉 포도를 담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거리퍼레이드를 응원하러 성거주민 1000 여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대상이 발표되고 그 날 광장에서 마을 주민 모두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 춤을 그냥 기분에 따라 마음껏 소리치고 흔들었죠. 그 순간 정말로 천안과 성거 그리고 나와 성거주민이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가슴에서 아주 뜨거운 무엇이 솟아오르고 약간 소름이 끼친다고나 할까요.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²⁴⁾



Figure 20 <2013 년 거리퍼레이드 대상 성거위례팀>



Figure 21 <성거 위례팀 거리퍼레이드>

거리퍼레이드는 천안의 정체성을 알리는 메신저이다. 성거위례(聖居) 팀은 백제(百濟) 수도의 역사와 지역적 이미지를 주제로 삼았다. 307 명이라는 압도적인 인원을 대동했고, 의상·소품·주제에서도 성거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백제시대를 회상하고 그에 맞는 귀족과 백성들 그리고 무사들을 구성해 307 명의 긴 행렬을 통해서 과거 성거의 위상과 가치를 잘 표현했다. 거리퍼레이드 역시 경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 심사위원들이 배치되어 평가한다. 춤과 음악, 의상과 장식, 관객호응, 참가인원수 등 4 개 분야를 평가해 대상을 뽑는다. 참가자는 5~50 명 이내이어야 하고, 대상은 600 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대상팀은 해외 축제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부, 학생부 등에 매우 높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퍼레이드는 축제의 정신을 강조했고,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참여와 자유로운 흥을 생산한다. ‘흥’의 지역적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춤’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다. 시민들은 공간을 지배하거나 전유할 수도 없다면 살아있는 축제라 할 수 없다. 소통과 나눔은 축제의 중요한 정신이다. 따라서 삼거리 공원과 아라리오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춤공연과 거리퍼레이드는 축제를 여는 중요한 관문이다. 시민들을 자유로운 참여의 무대로 이끌고 에너지를 생산케 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공간의 만남을 주도하고 있다

2) 지역경제의 활성화

축제는 지역 경제 발전의 역량을 증명하는 바로미터이다. 지자체마다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의 독특한 정서와 정체성을 특화 하는 일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토대로 인구성장과 산업·교통시설의 확대 등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문화공간에서 전통놀이 활성화, 놀이의 자발적 전승은 매우 고무적인 문화현상이다. 시민과 사회, 도시와 전통문화의 다양한 소통은 도시놀이 문화를 이해하는 데 좋은 선례를 ⁽²⁵⁾제시한다. 이런 문화적 요소들이 축제라는 거대 담론에 쌓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콘텐츠로 태어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축제를 대체할 만한 게 없다. 현대는 축제의 시대이다. 지방의회 구성 후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지역 축제 활성화에 사활을 거는 것도 그 이유다. 축제는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산업 육성과 인구 유입 등에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청주 공항과 아산만 개발로 천안이 중부권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거점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래 발전 천안을 위한 계획이 추진되면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초대 천안 민선 이근영 시장은 천안 발전 계획을 통해 중소도시로서의 과제를 세웠다. 우선 6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농촌을 도시처럼 가꾸기 위한 농촌경제 활성화, 둘째, 도시계획사업의 착실한 추진, 셋째, 도로개설 확장 및 교통문제의 획기적 개선, 넷째, 사회복지 증진과 환경보호, 다섯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마지막으로 경영행정 및 국제교류의 다변화에 시정의 중심을 두고 추진⁽²⁶⁾할 것을 강조했다. 2000년대 초 인구 100 만을 대비한 광역 도시 기본 계획을 1995년에 수립했고, 시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쌍용 4 지구 165천평 규모의 택지 개발을 주요 시책으로 꼽았다. 또한 향토미와 서정미, 예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삼거리의 문화제의 발전과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근영 시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천안은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매년 10월에는 34만 시민의 한마당 축제인 삼거리문화제가 성대히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 규모의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병천봉화제, 거봉포도축제, 신고배축제 등 특색있는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국악관현악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어 우리 고유의 음악인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는 하나밖에 없는 문화원이 우리 천안에는 3개소나 있는 것도 우리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²⁷⁾니다.

이근영 시장이 예견한 인구 100만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천안은 해마다 1만 2천명의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거점도시로서 100만 인구를 점치고 있다. 천안축제는 천안 경제의 중심점이며, 시민과 도시를 잇는 문화적 교량이다. 삼거리문화제는 2003년 천안홍타령 축제로 2011년 천안홍타령춤축제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했다. 2001년에서 2009년 천안으로 유입된 인구 이동을 살펴보면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2001년 천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충청권 기초 자치단체로 이동한

133,130 명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한 기초자치단체는 천안시이며, 전체의 약 12% 해당하는 16,034 명⁽²⁸⁾에 달하였다. 2009 년의 경우, 전국에서 166,221 명이 충청권으로 이동했고 천안시는 22,656 명이 유입되었다. 인구 유입과 함께 도시의 규모도 커지면서 축제의 규모도 함께 성장했다. 다음은 천안 삼거리 축제 1987 년 2002 년의 예산현황이다.

표 2 <1987 년~2002 년 천안삼거리문화제 예산, 천안시청 자료제공>

회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년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예산 (천원)	37,888	38,888	40,000	40,000	100,000	100,000	100,000	140,000	140,000	150,000	15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이처럼 천안삼거리문화제는 2003 년도 천안홍타령축제를 근간으로 예산과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천안축제는 2011 년도 최우수 축제로 지정되면서 국비 3 억 원과 도비 1 억 5000 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2010 년도 125 만 명 관람객 유치로 261 억여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고, 2011 년도 128 만 관람객에 280 억 원, 2012 년도 135 만 명으로 290 억 원의 경제 효과를 이루었다. 2013 년도 138 만 명이 참여해 300 억 2800 만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예로, 축제의 주무대인 삼거리 공원과 그 주변은 문화클러스터의 새로운 입지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8 년 개관한 천안박물관, 청당동 및 삼용동 일원에 역사문화 체험과 자연학습 등의 기능을 갖춘 6 만 여 평 규모의 대단위 생활공원인 청룡공원, 삼거리 공원내의 전통주 박물관인 천안홍타령관 등의 시설 확대로 삼거리 일대가 문화·휴식의 공간이 되었다. 2012 년 대한민국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KIEMSTA) 와 2013 년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의 개최는 축제와 성장하는 천안의 대외적 성과로 자랑할 만 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파급효과 외형적인 성장만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과신할 수는 없다. 천안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축제 운영과 행정적인 실천이 따라야 한다. 또 천안과 인근 주변 지역과의 상호교류와 협조를 이끌어 내고, 동·면·읍 의 소외 지역에 대한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농촌지역의 농산물 공급과 토산품 판매와는 별도로 이들이 공연 주체자로서의 참여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천안시는 천안문화재단을 설립해서 2012 년부터 독립적인 축제 운영 조직을 꾸려 천안홍타령축축제 전반을 기획·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에 결과보고서를 받아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향후 개선점과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살펴서 다음 축제의 방향과 운영 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양적인 축제의 성장 뒤에 가려진 시민 축제 본연의 정신과 가치를 잊지 않아야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3) 지방의 세계화

경연방식을 통한 흥·춤·노래는 천안축제를 이끄는 중심 테마이다. 천안의 지역적 정서를 살리면서 여기에 신명·감동·열정이 축제 정신으로 더해진다. 춤이라는 독특한 테마로 지방축제의 한계를 탈피했고, 경연방식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참여자를 유치했다. 축제가 지역민의 잔치로 다양성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외면당한다. 그러나 천안축제는 지역이란 한계를 극복하고 축제의 참여층을 다양하게 확대하면서 문화 천안의 대회적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세계의 우수한 민속춤 연희단체를 초대하고, 초청을 받아서 해외팀을 무대에 올리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였다. 바

로 이점이 천안 축제의 잠재력과 위상이다.

우선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대학문화의 연계와 소통이다. 천안은 13개 대학이 웅비하고 있는 중부권의 주요 교육 도시이다. 단국대학, 상명대, 순천향대, 호서대, 백석대 등 13개 대학이 축제 문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이 축제의 주요 참여자다. 이들은 축제 주요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가장 치열한 우승후보 대상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관객중의 하나이다. 춤 경연이 연령별로 그 층위를 나누는 대신 일반부는 그 한계를 없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일반부에서 가장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이는 이들 역시 대학생들이다. 다음은 일반부 춤공연 대상을 수상한 상명대 연극반의 이야기이다.

서울이 집이고 학교가 천안에 있지만 주로 끝나면 바로 서울로 가는 게 대부분이죠. 특별히 축제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상명대가 꾸준히 천안축제에 참여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선후배 사이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학교의 명예를 걸로 참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 대학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더 돋보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세 번 참여를 했고 이번에 주인공 유관순 역을 맡았어요. 해마다 무대가 세련되고 좋아지고 있음을 느끼거든요. 우선 학교와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축제가 열리는 한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연습에 들어가고 정말로 하루 종일 5분의 공연을 위해 모든 팀원들이 하나가 되죠. 또 3천명이 넘는 관객 앞에 공연을 한다는 것도 흔한 기회가 아니기에 정말로 온 열정을 다 쏟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주제를 농축해 표현한다는 것이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무대에서 동일하게 움직이고 똑같이 숨을 쉬죠. 그런 전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³¹⁾

13개 대학이 천안 축제를 중심으로 경연 경쟁에 돌입하고, 해마다 우수한 무대를 연출하는 주인공으로 인식되면서 일반부의 춤경연은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영광을 안는다. 둘째로 세계의 우수한 민속춤 연희단체와의 소통과 교류이다. 중국 문등시(文登市) 팀을 초청으로 2006년부터 세계의 우수한 민속춤 연희단체들이 초청되거나 참여를 희망하면서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의 춤을 무대에 올렸다. 이들은 각국의 독특한 의상과 노래, 악기, 춤으로 관객의 큰 환호와 갈채를 받는다. 천안은 폴란드, 터키,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유명한 전통 민속춤을 한 자리에 보여주면서 지역적 한계를 벗고 춤을 소통으로 삼았다. 또 일부 세계 민속춤 팀은 지역 학교와 소외 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축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인근 지역민들을 위해 춤배우기를 통한 지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는 서울 명동에서 축제 홍보를 위해 천안시와 세계 민속춤 연희팀이 함께 1시간이 넘는 예비 축제를 선보이면서 서울시민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지역 축제를 통해 세계의 우수한 민속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들 단체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천안의 축제를 세계로 알리는 토대를 마련했다.

셋째, 천안시는 국제춤축제연맹(Federation of international Dance Festivals: FIDAF)을 결성해 세계 16개국과 춤과 대중, 춤과 예술성을 극대화하는 기회를 축제로 연계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Figure 22 <2012 년 국제춤축제연맹 결성>



Figure 23 <2013 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민속춤축제>

모색하고 있다. 2012 년 국제춤축제연맹을 결성해 상호 춤축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세계의 주요 민속춤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초대하는 시스템이 마련된 셈이다. 우선 춤축제연맹은 천안에 본부를 두고, 향후 각 연맹 국가간 우수한 팀을 확보해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팀들이 보이는 양질의 공연 무대를 관람할 수 있다. 연맹은 집행위원회의에서 ‘천안홍타령춤축제’의 로고송인 ‘홍타령’ 노래와 ‘홍타령춤’을 연맹 공식 로고송과 기본춤으로 협의했다. 이것으로 ‘천안축제의 국제화’란 명목을 구체화하고, 각국의 지속적인 협의를 제공한다. 또 대학 무용과의 존재위기를 막아 대중성과 예술성의 접근을 실용화했고, 무용과를 졸업한 대학생들이 대중적인 무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환영받았다. 천안축제는 2013 년 창작부를 신설해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거나 졸업한 학생을 중심으로 예술성을 강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다. 2013 년 첫 대상팀은 강원도 발레팀이 차지했다. 천안축제는 지역을 넘어 유럽과 미국 아시아와 함께 하는 천안을 알리고 춤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는 11 월 (11.28~12.1) 자카르타 메르데카에서 국제민속춤축제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천안축제의 홍타령 노래와 춤을 공식 연맹 로고송과 춤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자카르타 축제는 3000 여명이 참가했으며, 로고송으로 홍타령을 추는 이벤트를 열었고, 폐막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10 여 개국의 참가국가 인도네시아 관람객에 큰 호응을 얻었으며 천안축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4 년 축제 개최예정지인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연맹국들도 홍타령 로고송과 홍타령춤을 추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천안에 본부를 두고 있는 FIDAF 는 춤이라는 주제로 다양성과 지역적 한계를 넘어 천안의 ‘홍’을 알리는 포석이 되었다. 시민의 축제, 젊어지는 축제, 중장년층의 축제, 그리고 인근 소외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축제로 성숙한 축제의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

천안축제는 2003 년 ‘춤축제’로서 다양성 모색에 성공했다. 10 년간 축제의 변화와 발전은 천안의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흥으로 즐기는 천안이라는 이미지를 춤으로 잘 대변했다. 그러나 양적인 축제의 성장에 앞서 축제가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정부 지원 최우수 축제가 올 해로 마무리 된다. 정부지원과 도비 지원이 줄면서 천안시의 부담액이 늘고, 축제 경비에 대한 지원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특히 축제 부대시설로 공원시설의 확장, 테마 공원 조성, 전통주 박물관 등이 들어섰다. 이들 시설의 경제적 운용에도 적잖은 부담을 지어야 한다. 또 해마다 해외 민속춤 팀을 초청하고, 이들의 체제유지비도 축제의 주요 예산으로 작용한다. 해외 팀의 자발적인 지원이 늘어나고 있

지만 초청형식은 여전히 주요한 방식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축제 기간 삼거리 공원에 설치한 여러 위탁시설과 축제기간 내 음식 부대시설에 대한 신청과 운용에 대해서도 지원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의 후원과 참여가 늘고 있지만 축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홍보용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선정의 투명성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축제는 지속적인 발전과 천안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국제춤축제연맹의 활약과 아시아 주변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방문, 전국적인 춤경연자들의 증가는 천안축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천안시와 문화재단은 정부 주도의 역할에서 조력자로서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 스스로가 만드는 축제의 가치와 의미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축제는 문화의 보고이고 소통의 창이다. 다양한 지역의 문화의 개성을 보여주고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축제만한 매개는 없다. 천안축제는 1974년 단오(端午)제에 출발해 1987년 삼거리홍타령문화제로 천안 지역 예술문화를 향유하고 발휘하는 기회로 시작했다. 16년 동안 지역문화의 역량을 발휘했지만 지역만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지는 못했다. 2003년 천안시는 축제 기획단을 세워 새로운 축제로서의 가능성과 지역 성장을 도모하는 청사진을 준비했다. 일본 요사코이 소란 마즈리를 견학하면서 97년도에 시도했던 거리퍼레이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성공했다. 천안 지역의 민요인 ‘홍타령’에서 흥을 끌어내어 축제의 정신적 모토로 삼았다. 주요 테마는 춤으로 전통적인 민속춤과, 현대무용, 고전, 재즈, 막춤을 망라한 모든 춤을 경연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최우수 팀을 가리는 춤축제이다. 2011년 문화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지정되면서 2013년 138만명에 300억 원이 넘는 경제 파급 효과를 보이며 발전했다. 천안을 대표하는 지역적 이미지를 전통적인 민요 ‘홍타령’과 접목하고, 축제의 주요 주제로 삼아 지역 정체성을 심화시키면서 다양한 참여자를 수용해 축제의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천안 지역 13개 대학의 협조 속에서 축제 참여자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천안 인근 읍·면·동 지역의 소외 계층까지 축제 무대로 이끌면서 지역민을 위한 유대강화에도 일조했다. 또 2012년 국제춤축제연맹을 조직해 세계의 우수한 민속춤 단체들과 안정적인 정보 구축과 교류·협력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무용 전공 대학 학과에 대중적인 무대를 마련한다는 교육적 취지까지 담아내 무용학계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지역의 한계를 넘어 60만 거점도시로서의 성장과 가능성을 담는 천안축제는 전국 유일의 춤축제로 부동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양적인 축제의 성장과 함께 천안 축제는 시민의 주인이 되고, 천안 시민이 만드는 참여의 축제로 지역적 정체성과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천안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를 보장해야 하고, 장기적인 축제의 발전을 위해 조력자로 일조해야 한다. 시민과 성장하는 축제, 시민의 의견이 소통되는 축제를 위해서 지속적인 참여와 연대로 천안의 ‘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注

- (1) 천안홍타령춤축제는 세 번 개명했다. 1987년 삼거리홍타령문화제, 1990년 삼거리문화제, 2003년 천안홍타령축제, 2011년 천안홍타령춤축제이다. 시기별 명칭이 변화되었고 본문에서는 여러 명칭의 변화를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이 ‘천안축제’로 지칭한다.
- (2) 홍타령은 천안을 대표하는 민요이다. “천안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으로 시작되는 민요는 천안의 지역적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흥(興)을 따와 축제의 기본적 모태로 삼았고, 천안의 정서를 대표하는 춤과 노래의 어우러짐이 나왔다. *필자는 2011년부터 2013년에 걸쳐 천안축제를 조사했다. 본고에 활용된 사진과 통계 자료는 천안시청과, 천안문화재단으로부터 제공받았다.
- (3) 김정환, 「지역축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석사논문, 2008); 원서진, 「관광클러스터 구축이 지역축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 석사논문 2009); 신진영, 「정책네트워크 관계구조와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2008); 홍승덕, 「지역 축제에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호서대 석사논문 2007); 임승용, 「지역축제의 체험적 요소가 축제의 브랜드자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 석사논문, 2010); 정숙희, 「지역축제와 무용공연활성화에 관한 연구」, 『우리춤 연구』, 제 19집, (2012); 채일권 외 「2008년 천안 홍타령 축제열차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급행전동차를 이용한 코레일 마케팅 성공사례 연구」, 6, (한국철도학회, 2009) 이덕구, 「천안 홍타령 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제 6권, (한국문화관광학회, 2004).
- (4) 『東國輿地勝覽』, 형승조편.
- (5) 『朝鮮名道邑誌』, (朝鮮博文社, 昭和 4년), 84면.
- (6) 『天安市志』, (天安市志編輯委員會, 1997년), 128면.
- (7) 앞의 책, 128면.
- (8) 『天安市志』, (天安市志編輯委員會, 1997년), 128면.
- (9) 「천안 삼거리의 어제와 오늘」, 『천안저널』, 100호 (2013년 10월호) 참조.
- (10) 1975년 5월 28일 동아일보.
- (11) 앞의 신문.
- (12) 1976년 6월 16일 동아일보.
- (13) 앞의 신문.
- (14) 인터뷰 시간 : 2013년 11월 18일 : 조은덕 팀장 (천안시청 감사과).
- (15) 1975년 5월 38일 동아일보. 1986년 7월 12일 동아일보. 향토문학가 민병달 (閔丙達) 온양 (溫陽) 중학교 교장에 의해서 체계화된 전설을 극작가 (朴牛春에 의해서 마당극 여섯마당 능소전 (綾紹傳)으로 올렸다. 1987년 10월 9일 경향신문. 『天安市志』, (天安市志編輯委員會, 1997년), 2017면 참조.
- (16) 인터뷰 시간 : 2011년 12월 4일, 대상 : 안동순 팀장 (천안시 문화관광과).
- (17) 삼거리 문화제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역 축제 전문가인 김춘식 교수 (천안대학교)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그는 삼거리 ‘홍타령’이 천안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이 역사적 자원이 축제의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제시했다. 김춘식은 「천안홍타령축제 2003 조사연구」를 통해 천안삼거리문화제의 개선점과 변화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2003 천안 축제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
- (18) 인터뷰 시간 : 2013년 11월 8일, 대상 : 김수열 과장 (천안시 복지정책과). 김수열은 2003년 천안시 문화예술팀장을 맡으며 4년간 홍타령 춤축제를 지휘했고, 문화관광부 예비축제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 (19) 이승수, 『새로운 축제의 창조와 전통축제의 변용』, (민속원, 2003), 128면.
- (20) 앙리 그페브르,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86면.
- (21) 앞의 책, 87면.
- (22) 춤경연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한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실버부를 두었다.
- (23) 인터뷰 시간 : 2012년 12월 10일, 대상 : 안동순 팀장 (천안시 문화관광과).
- (24) 인터뷰 시간 : 2013년 10월 29일, 대상 : 성거위례팀 참여자 (성거화원 여주인).

- (25) 한남수, 「北京空竹놀이의 전승양상」, 『민속학연구』 29, (국립민속박물관, 2011), 141 면.
- (26) 공제회자료, 「민선단체장 2 차년도를 설계한다」,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6), 55 면.
- (27) 앞의 논문, 57 면.
- (28) 이진희, 김동명, 「충청권과 비충청권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인구이동 특성분석」, 『지역연구』, 27 (3), (한국지역사회, 2011), 108 면.
- (29) 앞의 논문, 109 면.
- (30) 2011 년 · 2012 년 · 2013 년도 천안홍타령춤축제 결과보고서, 천안시, 천안문화재단.
- (31) 인터뷰 시간 : 2012 년 12 월 10 일, 대상 : 상명대 연극반 3 학년 이서영 (천안시 상명대학교 연극반 연습실). 2013 년 상명대팀은 일반부 대상을 차지했다.

참고문헌

- 『東國輿地勝覽』, 형승조편.
- 『朝鮮名道邑誌』, (朝鮮博文社, 昭和 4 년).
- 『天安市志』, (天安市志編輯委員會, 1997 년).
- 1975 년 5 월 28 일 동아일보.
- 1976 년 6 월 16 일 동아일보.
- 1986 년 7 월 12 일 동아일보.
- 1987 년 10 월 9 일 경향신문.
- 2006 년 천안홍타령춤축제 보고서, 천안시.
- 2007 년 천안홍타령춤축제 보고서, 천안시.
- 2008 년 천안홍타령춤축제 보고서, 천안시.
- 2011 년 천안홍타령춤축제 보고서, 천안시.
- 2012 년 천안홍타령춤축제 보고서, 천안시문화재단.
- 2013 년 천안홍타령춤축제 보고서, 천안시문화재단.
- 2013 년 천안홍타령춤축제 세부추진계획, 천안시 · 천안문화재단.
- 1990 년 천안시통계연보, 천안시.
- 1998 년 천안시통계연보, 천안시.
- 2000 년 천안시통계연보, 천안시.
- 「천안 삼거리의 어제와 오늘」, 『천안저널』, 100 호 (2013 년 10 월호).
- 「민선단체장 2 차년도를 설계한다」,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6).
- 앙리 그페브르,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논문 :

- 김정환, 「지역축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석사논문, 2008).
- 신진영, 「정책네트워크 관계구조와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2008).
- 원서진, 「관광클러스터 구축이 지역축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 석사논문, 2008).
- 이덕구, 「천안 홍타령 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제 6 권, (한국문화관광학회, 2004).
- 이승수, 『새로운 축제의 창조와 전통축제의 변용』, (민속원, 2003)
- 이진희, 김동명, 「충청권과 비충청권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인구이동 특성분석」, 『지역연구』 27 (3), (한국 지역학회, 2011).
- 임승용, 「지역축제의 체험적 요소가 축제의 브랜드자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 석사논문, 2010).
- 정숙희, 「지역축제와 무용공연활성화에 관한 연구」, 『우리춤 연구』, 제 19 집, (2012).

- 채일권의 「2008 년 천안 흥타령 축제열차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급행전동차를 이용한 코레일 마케팅 성공사례 연구」 6, (한국철도학회, 2009).
- 홍승덕, 「지역 축제에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호서대 석사논문, 2007). (대구대 석사논문, 2010).
- 한남수, 「北京空竹놀이의 전승양상」, 『민속학연구』 29, (국립민속박물관, 2011).